

[REPORT]

한국리서치-매일경제신문 공동 기획 - 국민 건강/의료/보건 실태 조사

2014년 5월

(주) 한국리서치 Healthcare 조사 사업부



[CONTENTS]

I. 조사 개요

II. 주요 결과

Part 1. 건강관리 실태	5p
Part 2. 피부, 성형, 외모에 대한 태도	12p
Part 3. 우울증 관련 실태	19p
Part 4. 병원에 대한 태도	24p

[CONTENTS]

I.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조사 대상

전국(제주도, 세종시 포함) 만 30세 이상 남녀

자료 수집 방법

한국리서치 Master Sample Panel (Access Panel)을 활용한 On-line Survey

유효표본 수

총 997명

표본 추출 방법

통계청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분포 비율을 반영한 할당표집

자료수집기간

2014년 4월 18일 ~ 4월 22일 (5일간)

[CONTENTS]

II. 주요 결과

Part 1. 건강관리 실태

Part 2. 피부, 성형, 외모에 대한 태도

Part 3. 우울증 관련 실태

Part 4. 병원에 대한 태도

1. 본인 건강에 대한 생각

- 30대 이상 국민 4명 중 1명은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 고 답했다.
-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연령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신가요?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별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270	305	271	151
매우 건강하다 (7)	2.0	3.2	0.8	1.1	1.3	3.0	3.3
건강한 편이다 (6)	24.4	25.0	23.8	22.6	21.3	24.4	33.8
약간 건강한 편이다 (5)	16.3	16.6	16.1	17.8	15.4	15.9	16.6
건강하다 (7+6+5)	42.7	44.8	40.7	41.5	38.0	43.2	53.6
보통이다 (4.00)	32.3	33.1	31.5	34.1	39.7	29.2	19.9
건강하지 않다 (1+2+3)	25.0	22.2	27.8	24.4	22.3	27.7	26.5
약간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	17.2	16.8	17.5	18.9	15.4	18.8	14.6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2)	7.2	4.6	10.0	5.6	6.6	7.7	10.6
전혀 건강하지 않다 (1)	0.6	0.8	0.4		0.3	1.1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건강 검진

- 30대 이상 국민 10명 중 9명은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그 중 30% 정도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 매년 1회 이상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여성(21.5%)에 비해서 남성(32.3%)이 높다.
-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의 37%는 본인의 돈으로 검진을 받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검진을 받는 비율은 30~40대에 비해 50대 (49%)부터 높아지는 경향이다. 이는 50대부터 은퇴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귀하는 얼마나 자주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나요?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별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270	305	271	151
1년마다 1회 이상	27.0	32.3	21.5	28.5	27.9	28.0	20.5
2년마다 한번씩	45.2	42.2	48.4	32.2	44.3	49.4	62.9
3년마다 한번씩	4.7	5.1	4.3	5.6	4.6	5.9	1.3
그보다 더 오랜 기간에 한번씩	13.3	11.5	15.2	15.6	14.1	11.4	11.3
받은 적 없다	9.7	8.9	10.6	18.1	9.2	5.2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건강검진은 누가 검진비용을 지불하였나요? (건강검진 수검자 900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900	460	440	221	277	257	145
본인의 회사에서	39.4	51.5	26.8	60.6	45.1	29.6	13.8
본인의 돈으로 직접	37.0	35.9	38.2	24.0	30.7	49.0	47.6
국민건강보험공단무료검진	11.6	7.4	15.9	3.2	14.4	12.1	17.9
가족(자녀/부모 등)이 다니는 회사에서	8.1	3.9	12.5	8.6	7.2	7.0	11.0
가족(자녀/부모 등) 중에서 돈을 내줘서	3.3	1.3	5.5	3.2	1.8	1.9	9.0
실손보험/개인보험	0.3		0.7		0.7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건강 관리 방법

- 30대 이상 국민 10명 중 5명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다.
-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비율은 여성이 54.1%로 남성 48.5%에 비해 다소 높다. 반면에 땀이 나는 운동은 남성(35.4%)이 여성(2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복수응답]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별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270	305	271	151
건강기능식품 (홍삼, 비타민, 오메가, 알로에 등)을 먹고 있다	51.3	48.5	54.1	47.4	52.5	52.8	53.0
땀이 나는 운동을 한다	28.5	35.4	21.3	25.9	28.9	25.5	37.7
소식 (小食, 적게 먹음)	26.2	24.2	28.3	14.4	24.6	33.2	37.7
5 km이상 매일 걷는다	17.4	20.4	14.2	10.0	18.0	23.2	18.5
헬스장/피트니스 센터에 다닌다	14.9	15.4	14.4	13.3	15.1	14.4	18.5
기타 운동	3.0	2.6	3.5	0.7	2.0	4.4	6.6
기타	0.7	1.2	0.2	0.7	0.3	0.4	2.0
식단조절	0.5	0.2	0.8	0.4	0.7	0.4	0.7
금연	0.1	0.2			0.3		
위의 것 중에는 없다	11.0	8.3	13.8	19.3	9.8	7.0	6.0

3. 건강 관리 방법 (만성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재 만성질환자 268명에게 질환이 걸린 이후에 삶에서 바뀐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47%가 식단을 바꾸었다고 했고, 그 다음으로 소식(39%), 금주(32%)순으로 생활을 바꾸었다

현재 치료중인 질환을 앓고 나서 귀하의 생활에 변한 것이 있으신가요? [복수응답]

	전체	성별		연령별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268	140	128	32	54	95	87
식단 (예. 채식위주의 식단으로 변경)	47.0	50.0	43.8	34.4	40.7	45.3	57.5
소식 (적게 먹음)	39.2	40.0	38.3	21.9	37.0	38.9	47.1
술을 마시지 않게 됨 / 술을 줄임	32.1	43.6	19.5	25.0	40.7	30.5	31.0
담배를 끊음 / 줄임	21.6	39.3	2.3	15.6	20.4	20.0	26.4
회사/직장/사업장에서의 일하는 시간을 줄임	6.0	5.7	6.3	6.3		6.3	9.2
기타	7.1	7.1	7.0	9.4	3.7	8.4	6.9
변한 것 없음	25.4	18.6	32.8	28.1	29.6	26.3	20.7

(만성질환자 268명, %)

4. '건강관리'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 10명 중 6명은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 보지만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이들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공통적으로는 **본인의 의지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직장인(자영업자 제외)들은 **잡은 야근이나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소득이 낮을 수록 건강관리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더 가까우신가요?

(단위 : %)

	전체	성별		연령별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270	305	271	151
내 건강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	18.8	17.4	20.3	23.0	17.0	16.6	19.2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해 보지만 잘 안 된다	58.1	58.8	57.3	64.8	62.6	55.0	42.4
비교적 건강관리를 규칙적으로 잘하고 있는 편이다	23.1	23.8	22.4	12.2	20.3	28.4	38.4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 보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복수응답]

(단위 : %)

	전체	직업					소득			
		관리/사무/전문직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무/기술직	주부	200만원 이하	200~399만원	400~599만원	600만원 이상
응답자의 수	579	314	25	19	36	120	54	247	191	87
본인의 의지 부족	75.6	75.8	88.0	84.2	77.8	75.0	70.4	74.1	75.4	83.9
잡은 야근 / 과중한 업무	25.0	35.0	4.0	31.6	44.4	1.7	11.1	27.1	29.3	18.4
경제적 부담 (건강관리에 돈을 쓸 여력이 안돼서)	25.0	22.9	16.0	31.6	36.1	29.2	48.1	28.7	19.9	11.5
집에서 많은 잡일	20.2	20.7	12.0	5.3	8.3	30.8	20.4	20.2	22.0	16.1
직장의 잦은 회식	14.2	20.7	16.0	10.5	16.7		5.6	13.0	15.7	19.5
좋은 건강관리법을 잘 몰라서	12.8	10.8	8.0	15.8	16.7	14.2	11.1	13.8	12.6	11.5
기타	1.0	0.3	4.0			2.5	3.7	0.8		2.3
육아	0.3					1.7		0.8		
시간이 없음	0.3	0.3				0.8		0.4		1.1

5. 직장/사업장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은?

- 회사/사업장에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에 비용이나 시설을 지원해 주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652명 중에 21.5%만이 그렇다고 답해 직원에게 건강관리 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많지 않았다.

귀하가 일하시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에 비용이나 시설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직장인 652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652	418	234	197	226	172	57
그렇다	21.5	24.6	15.8	25.4	19.9	20.3	17.5
아니다	78.5	75.4	84.2	74.6	80.1	79.7	82.5

[CONTENTS]

II. 주요 결과

Part 1. 건강관리 실태

Part 2. 피부, 성형, 외모에 대한 태도

Part 3. 우울증 관련 실태

Part 4. 병원에 대한 태도

1. 금년이나 작년에 성형시술을 받은 사람은?

- 30대 이상의 여성의 6%가 금년 또는 작년에 성형시술을 받았으며, 남성도 2%가 성형시술을 받았다고 답했다.
- 연령별로 보면 남성들이나 여성들 모두 연령별로 시술을 받은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다.

금년이나 작년에 성형 시술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단위 : %)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138	156	136	75	132	149	135	76
예	4.0	2.0	6.1	2.2	1.9	2.2	1.3	6.1	5.4	7.4	5.3
아니오	96.0	98.0	93.9	97.8	98.1	97.8	98.7	93.9	94.6	92.6	94.7

2. 성형 시술 받고 싶은 의향과 받고 싶은 부위는?

- 49%가 성형시술을 받고 싶어한다. 특히 남성의 비율이 약 41%로 여성이 58%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많은 남성들이 성형시술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형 시술을 받고 싶은 부위로는 얼굴 중에서 눈, 치아, 코 이마 순으로 답했다.

금년이나 내년 중에 성형 시술 의향은?

(단위 : %)

	전체	성별	
		남	여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없다	50.8	58.8	42.5
있다	49.2	41.2	57.5

가능하다면 받고 싶은 시술 부위는?

(단위 : %)

	전체	성별	
		남	여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얼굴■	35.2	27.7	42.9
눈	15.6	10.1	21.3
치아	9.2	8.3	10.2
코	5.2	4.0	6.5
이마	4.8	4.0	5.7
볼	4.8	2.8	6.9
턱	3.4	2.2	4.7
광대뼈	2.0	1.2	2.8
■몸■	13.6	8.7	18.7
배	7.0	5.3	8.7
가슴	3.0	0.6	5.5
다리	2.7	1.0	4.5
■기타■	10.8	9.9	11.8
털/수염 제모	7.1	5.7	8.5
기타	3.1	4.0	2.2
피부관리/피부톤보정	0.6	0.2	1.0

3. 성형이나 외모에 대한 태도

- 30대 이상의 남녀 10명 중 7명 정도는 자신의 얼굴을 마음에 들어 한다. 특히 남성(82%)은 여성(62%)보다 자신의 얼굴에 대해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
- 절대 다수가 외모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65%)이 외모를 가꾸는 데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 3명 중 1명은 약이나 수술을 통해서라도 살을 빼고 싶어한다. 남성들도 26%는 그러고 싶어한다. 적지 않은 숫자이다. 심지어 BMI 지수가 정상인 사람들 중에서도 27%는 이렇게라도 살을 빼고 싶어한다.

성형이나 외모에 대한 태도는?

(단위 : '그렇다'고 답한 응답율)

	전체	남	여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외모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이다	93.3	91.9	94.7
내 얼굴은 마음에 든다	72.1	81.6	62.4
성형수술을 받아서 더 예뻐지면 좋을 뿐이다	67.2	63.0	71.5
외모를 가꾸는 데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	64.7	58.4	71.1
내 얼굴 피부는 남들보다 좋은 편이다	63.1	62.8	63.4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약이나 수술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을 빼고 싶다*	33.8	26.1	41.7
여건만 된다면 많은 부위의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	15.9	10.9	21.1

* BMI지수

18.5이상-23미만 (정상) 27%

4. 부모에게 주름 제거 시술을 해줄 의향은?

- 응답자의 35%는 부모님에게 필러나 보톡스를 이용한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해 줄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의향은 특히 여성 30대와 여성 40대가 타 연령 대비 높다.

부모님을 위해 주름살 제거 목적의 필러나 보톡스 같은 시술을 해 드릴 의향이 있나요?
(단위 : %)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138	156	136	75	132	149	135	76
그렇다	34.8	28.7	41.1	37.7	30.8	26.5	12.0	51.5	41.6	37.0	28.9
아니다	65.2	71.3	58.9	62.3	69.2	73.5	88.0	48.5	58.4	63.0	71.1

5. 자녀에 대한 성형수술 태도는?

- 자녀의 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간단한 시술의 경우에는 70%가 넘는 사람들이 허락할 것이라고 답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나,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는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9%로 성형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귀하의 자녀가 쌍꺼풀 수술이나 주름살 제거 같은 비교적 가벼운 시술을 한다면? (단위 : %)

	전체	성별	
		남	여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허락할 것이다	72.0	67.7	76.4
못하게 할 것이다	28.0	32.3	23.6

귀하의 자녀가 가벼운 시술이 아닌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는 성형수술을 한다면? (단위 : %)

	전체	성별	
		남	여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허락할 것이다	11.0	9.3	12.8
못하게 할 것이다	89.0	90.7	87.2

6. 피부관리

- 남성들의 7%는 피부관리를 위해 병원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고 있으며, 4%는 피부관리실/에스텍 등의 피부전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각각 9%, 17%가 이용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면 적지 않은 남성들이 피부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부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남성은 한 달에 평균 약 18만원, 여성은 약 17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어서 피부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남녀 차이가 없다. 향후 남성들이 중요한 피부관리의 고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인의 피부관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는 곳은? [복수 응답]

	전체	성별	
		남	여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병원 (피부과/성형외과 등)	7.7	6.7	8.7
피부관리실/에스텍/스파	10.4	4.4	16.7
한의원	3.3	4.0	2.6
마사지	0.2	0.2	0.2
목욕탕/사우나	0.4	0.2	0.6
해당사항 없음	81.1	86.9	75.2

(단위 : %)

본인 피부관리를 위해 한 달에 얼마를 쓰나요?

	전체	성별	
		남	여
응답자의 수	188	66	122
5만원 이하	29.3	34.9	26.2
10만원 이하	34.6	30.3	37.0
20만원 이하	18.6	16.6	19.7
50만원 이하	13.8	15.1	13.0
100만원 이하	2.1	1.5	2.4
100만원 초과	1.5		
평균	17만원	17만8천원	16만5천원

(단위 : %)

[CONTENTS]

II. 주요 결과

Part 1. 건강관리 실태

Part 2. 피부, 성형, 외모에 대한 태도

Part 3. 우울증 관련 실태

Part 4. 병원에 대한 태도

1. 우울증 (Perceived Depression) 경험

- 10명 중 3명은 우울증을 경험했거나 현재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성 (37%)이 남성(23%)에 비해 우울증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35%는 우울증을 6개월이 넘게 앓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귀하는 본인이 과거나 현재에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단위 : %)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138	156	136	75	132	149	135	76
그렇다	29.9	23.0	37.0	24.6	22.4	22.1	22.7	44.7	32.9	34.8	35.5
아니다	70.1	77.0	63.0	75.4	77.6	77.9	77.3	55.3	67.1	65.2	64.5

본인이 과거에 앓았던 또는 현재 앓고 있는 우울증은 얼마나 지속되었나요? (단위 : %)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298	116	182	34	35	30	17	59	49	47	27
1개월 미만	29.9	33.6	27.5	35.3	37.1	33.3	23.5	22.0	32.7	31.9	22.2
1개월 - 6개월 미만	34.9	37.9	33.0	32.4	37.1	36.7	52.9	40.7	26.5	27.7	37.0
6개월 - 2년 정도	19.5	17.2	20.9	11.8	20.0	20.0	17.6	16.9	20.4	29.8	14.8
2년 이상 증상 지속	15.8	11.2	18.7	20.6	5.7	10.0	5.9	20.3	20.4	10.6	25.9

2. 우울증의 원인

-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또는 경험했던) 사람들은 본인의 우울증의 이유로 남녀 공통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하는 일마다 일이 되지 않아서, 가족이나 회사에서 소외 등이 다음으로 높았다.
- 30대~40대 여성들 10명 중 3명 정도는 임신과 출산 이후에 경험하고 있으며, 50대 여성 47%는 갱년기 또는 폐경기에 경험했다고 답했다.
- 60대 남성은 실직 또는 퇴직 이후에 경험했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다.

본인의 우울증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 응답]

(단위 : %)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298	116	182	34	35	30	17	59	49	47	27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40.9	38.8	42.3	26.5	48.6	40.0	41.2	35.6	38.8	61.7	29.6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31.5	36.2	28.6	26.5	48.6	40.0	23.5	35.6	22.4	31.9	18.5
가족 또는 회사에서 소외를 받아서/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25.5	21.6	28.0	29.4	22.9	20.0	5.9	37.3	14.3	36.2	18.5
실직 또는 퇴직 이후에	13.4	23.3	7.1	11.8	25.7	20.0	47.1	5.1	4.1	8.5	14.8
임신과 출산 이후에	13.1		21.4					32.2	32.7	6.4	3.7
불면증 때문에	13.1	12.9	13.2	8.8	8.6	23.3	11.8	10.2	16.3	17.0	7.4
갱년기 또는 폐경기 때문에	12.4	2.6	18.7		2.9	6.7			12.2	46.8	22.2
이별이나 사별을 겪고 나서	11.7	13.8	10.4	17.6	20.0	6.7	5.9	10.2	10.2	8.5	14.8
다른 질병을 앓고 난 후 그 후유증으로	7.7	9.5	6.6	2.9	2.9	16.7	23.5		10.2	10.6	7.4
가정불화 (남편/자녀/고부갈등)	2.3	0.9	3.3		2.9			1.7	2.0	4.3	7.4
기타	2.0	1.7	2.2	2.9	2.9				2.0	6.4	
사회에 대한 불만	0.3	0.9				3.3					
본인의 성격/기질	1.0		1.6					1.7	2.0		3.7
가족의 병/사고	1.0		1.6					3.4			3.7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	14.1	19.0	11.0	26.5	14.3	20.0	11.8	13.6	16.3	2.1	11.1

3. 우울증이 자살 충동,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경우는?

- 우울하다고 느낄 때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58%가 ‘그렇다’고 했다. 남녀 공통적으로 50대에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 10명 중 1명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우울하다고 느낄 때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었나요? (우울증 경험자 중에서)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298	116	182	34	35	30	17	59	49	47	27
그렇다	58.4	61.2	56.6	58.8	62.9	70.0	47.1	57.6	46.9	63.8	59.3
아니다	41.6	38.8	43.4	41.2	37.1	30.0	52.9	42.4	53.1	36.2	40.7

(우울증 경험자 298명, %)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울증 경험자 중에서)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298	116	182	34	35	30	17	59	49	47	27
그렇다	9.7	9.5	9.9	14.7	14.3	3.3	-	6.8	14.3	6.4	14.8
아니다	90.3	90.5	90.1	85.3	85.7	96.7	100.0	93.2	85.7	93.6	85.2

(우울증 경험자 298명, %)

4. 우울할 때 해결하는 방법은?

- 우울한 기분이 들 때, 남성의 경우에는 혼자 삭이거나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경우(48%)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친구들과 얘기한다(44%)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녀간에 해결 방식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병/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는다는 사람은 3%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울한 기분이 들 때 해결하는 방법은?

(단위 : %)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138	156	136	75	132	149	135	76
혼자 삭이거나 술을 마신다	38.3	48.1	28.3	49.3	50.0	44.1	49.3	38.6	27.5	27.4	13.2
TV를 본다	37.1	37.4	36.8	42.8	37.2	36.0	30.7	35.6	39.6	32.6	40.8
가족 / 친구들과 얘기한다	37.0	30.5	43.7	31.9	40.4	23.5	20.0	53.8	44.3	37.0	36.8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다	28.0	20.4	35.8	25.4	28.2	10.3	13.3	40.2	47.7	27.4	19.7
여행을 다녀온다	23.8	27.5	19.9	19.6	30.1	28.7	34.7	18.2	14.8	26.7	21.1
책을 읽는다	18.8	16.2	21.3	13.0	17.9	16.2	18.7	19.7	24.8	19.3	21.1
병/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는다	3.1	3.8	2.4	3.6	3.2	5.1	2.7	1.5	2.7	1.5	5.3
등산을 가거나 운동을 한다	2.2	4.2	0.2	1.4	8.3	2.2	4.0			0.7	
음악을 듣는다	1.5	1.6	1.4	2.2	1.3	0.7	2.7	1.5	1.3	0.7	2.6
잠을 잔다	1.5	1.4	1.6	3.6	1.3			1.5	2.7	0.7	1.3
종교생활/기도를 한다	1.3	0.2	2.4				1.3	1.5		2.2	9.2
기타	1.1	0.6	1.6		0.6	0.7	1.3	0.8	1.3	1.5	3.9
어느 방법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6.0	4.6	7.5	4.3	1.9	5.9	8.0	6.8	6.0	7.4	11.8

[CONTENTS]

II. 주요 결과

Part 1. 건강관리 실태

Part 2. 피부, 성형, 외모에 대한 태도

Part 3. 우울증 관련 실태

Part 4. 병원에 대한 태도

1. 병/의원에 대한 다양한 태도는?

- 동네 의원에 대한 선호가 종합병원보다 높았다. 4명 중 3명은 동네의원도 신뢰하고 있고, 약 60%는 중증이든 경증이든 상관없이 동네의원을 항상 먼저 이용하고 있다. 반면 아프면 처음부터 종합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는 답은 17.5%로 낮았다.
- 64%는 대형 종합병원과 대학병원간 의사들의 실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돈을 추가로 낼 용의가 있다.
- 병원에서 약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는 답은 48%로 질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는 응답 63%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단위 : %)

	그렇다	그렇지 않다
양약은 가급적 안 먹는 것이 좋다	53.1	46.9
조금만 아파도 의사를 찾아 간다	14.2	85.8
나는 아플 때는 심하거나 가볍거나 상관없이 늘 가까운 동네 의원으로 가장 먼저 간다	59.2	40.8
동네 의원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은 신뢰할만하다	75.4	24.6
아프면 처음부터 종합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17.5	82.5
종합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의 의사보다 실력이 좋다고 생각한다	54.7	45.3
대학병원과 대형종합병원간 의사들 사이에 실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63.8	36.2
병/의원에서 의사들에게 내 질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있다	63.3	36.7
의사들에게 내가 처방받은 약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있다	48.3	51.7
병/의원에서 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돈을 추가로 낼 용의가 있다	72.7	27.3

2. 대학병원 만족 수준

- 65%는 국내 대학종합병원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있다. 특히 30~40대 연령층의 만족도가 더 낮다.
- 이들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대기 시간이 길고, 의사와 상담이 짧기 때문이다. 또한 타 의료기관보다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어 과잉진료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기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의사 상담시간은 짧은데 반해 돈은 더 내고 있다는 것이 불만의 실체로 보인다.

대학종합병원에 만족하는가?

(단위 : %)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138	156	136	75	132	149	135	76
만족한다	35.0	38.0	31.9	32.6	32.1	43.4	50.7	26.5	27.5	35.6	43.4
만족하지 않는다	65.0	62.0	68.1	67.4	67.9	56.6	49.3	73.5	72.5	64.4	56.6

대학종합병원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복수응답]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648	313	335	93	106	77	37	97	108	87	43
대기시간이 길어서	84.3	81.8	86.6	80.6	84.9	79.2	81.1	84.5	95.4	81.6	79.1
의사와 상담하는 시간이 짧아서	67.4	66.8	68.1	57.0	67.0	74.0	75.7	63.9	67.6	73.6	67.4
타 의료기관보다 의료비가 많이 나와서	62.2	57.8	66.3	55.9	61.3	55.8	56.8	67.0	70.4	60.9	65.1
과잉진료를 하는 것 같아서	50.2	52.1	48.4	47.3	52.8	51.9	62.2	44.3	47.2	50.6	55.8
잘 설명해 주지 않아서	44.0	41.9	46.0	45.2	43.4	35.1	43.2	47.4	48.1	47.1	34.9
병실 예약 하기가 쉽지 않아서	33.8	35.5	32.2	36.6	34.9	32.5	40.5	27.8	35.2	29.9	39.5
의료진이 친절하지 않아서	29.2	24.9	33.1	29.0	23.6	20.8	27.0	38.1	24.1	33.3	44.2

3. 병/의원을 보는 시각

- 국내 병/의원이 ‘일반 기업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것’과 ‘환자 치료라는 보편적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영리 추구를 더 중시한다고 보는 입장이 58%로 보편적 공익 서비스 제공(21%)이나, 둘 모두 똑같이 중시 (17%)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귀하는 국내 병/의원이 공익서비스 제공 과 영리 추구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단위 : %)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138	156	136	75	132	149	135	76
국내 병/의원은 보편적 의료/공익 서비스 제공을 더 중시한다	20.6	23.8	17.3	25.4	28.8	21.3	14.7	20.5	18.1	16.3	11.8
국내 병/의원은 영리 추구를 더 중시한다	57.9	58.8	56.9	54.3	60.9	59.6	61.3	51.5	61.7	57.0	56.6
둘 모두 똑같이 중시한다	17.0	14.3	19.7	16.7	9.6	11.8	24.0	23.5	16.8	15.6	26.3
잘 모르겠다	4.6	3.2	6.1	3.6	0.6	7.4		4.5	3.4	11.1	5.3

4.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은 같은가, 다른가?

- ‘의료 민영화’와 ‘영리 병원’이 같은 것/비슷한 것이라는 인식이 65%로 다르다 23%, 모르겠다 12%는 인식보다 더 많았다.

귀하는 ‘의료 민영화’와 ‘영리 병원’은 같다(비슷하다), 다르다 중에서 어느 쪽인가요? (단위 : %)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138	156	136	75	132	149	135	76
같다 / 비슷하다	65.2	68.9	61.4	68.8	71.2	69.9	62.7	69.7	63.1	58.5	48.7
다르다	22.5	22.4	22.6	21.0	19.9	21.3	32.0	19.7	19.5	24.4	30.3
잘 모르겠다	12.3	8.7	16.1	10.1	9.0	8.8	5.3	10.6	17.4	17.0	21.1

5. 투자 개방형 의료기관에 대한 의견

- 58%는 '투자 개방형 의료기관'이라는 들어 본 적이 없다.
-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준 후 국내 도입 의견을 질문한 결과, 반대한다 (46%)는 의견이 찬성한다(24%)는 의견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다. 30%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 돈 있는 환자들만 골라서 치료할 가능성이 높고(53%),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것 (25%)이 주된 도입 반대 이유이다.

'투자 개방형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이런 '투자 개방형 의료기관'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 또는 반대하시나요?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997	505	492	138	156	136	75	132	149	135	76
반대한다	46.3	47.5	45.1	53.6	55.8	37.5	37.3	54.5	47.7	40.7	31.6
찬성한다	23.8	28.5	18.9	20.3	22.4	35.3	44.0	13.6	17.4	23.0	23.7
잘 모르겠다	29.9	24.0	36.0	26.1	21.8	27.2	18.7	31.8	34.9	36.3	44.7

'투자 개방형 의료기관' 도입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462	240	222	74	87	51	28	72	71	55	24
돈 있는 환자들만 골라서 치료할 가능성이 높아서	52.6	53.3	51.8	54.1	58.6	47.1	46.4	62.5	50.7	43.6	41.7
의료비 수준이 높아져서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므로	24.7	22.1	27.5	17.6	18.4	31.4	28.6	13.9	26.8	36.4	50.0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을까 봐	17.5	20.4	14.4	27.0	18.4	15.7	17.9	19.4	12.7	16.4	
신문 및 방송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해서	4.1	2.5	5.9	1.4	2.3	2.0	7.1	4.2	8.5	3.6	8.3
국가 의료 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0.6	0.8	0.5			3.9			1.4		

본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락처

김경현 수석부장 이메일 : khkim@hrc.co.kr 전화: 02-3014-1012

조윤경 차장 이메일 : ykc6@hrc.co.kr 전화: 02-3014-1010

남호연 과장 이메일 : hynam@hrc.co.kr 전화: 02-3014-1072